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3..77.401

〈일반논문〉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글로벌-빅히스토리; 오하이오강과 미시시피강의 수계를 중심으로*

양 홍 석 **

〈목차〉

Ⅰ. 서론
Ⅱ. 대서양노예무역에서 미국국내노예무역으로
Ⅲ. 미국 중서부지역과 노예제도와 노예무역
Ⅳ. 결론

[국문초록]

대서양 양안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후 이른바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국내무역”이 야기한 그 충격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국내무역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오하이오강 너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북방지역은 일찍이 건국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자유노동을 기축으로 설계된 1787년 북서부조례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정상 이 지역에서는 노예무역과 노예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 이 논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청소년 인생학교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그러므로 오하이오 강을 바로 이 두 제도의 경계선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 지역에서도 노예거래와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두 강의 수계(水系)가 하나로 통합되고 노예무역에서 노예제도로 확대되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특히 미시시피 수계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면화와 노예의 확대로 인하여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하이오강 수계가 또 하나의 노예제 자본주의 경제로 확대되어가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시피강 주위의 노예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농산품을 준비하고 거래하는 무역이 오하이오강 수계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반대로 미시시피 수계의 모든 물산이 모이는 뉴올리언스를 통하여 대서양 양안의 선진 공업 생산품을 들여오는 상업과 무역이 이 경로에 편입되었다. 이른바 “시장혁명” “도시혁명” “통신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무역과 산업 네트워크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대서양 양안에서 시작된 이 인간 상품의 거래가 이제 저 오지의 지역까지 몰아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빅히스토리의 한 보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주제어
노예무역, 시장혁명, 교통혁명, 오히이오강, 미시시피강

I. 서론

대서양을 양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당대의 세계 경제에 대해 중요한 조망을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근대 계몽주의와 시민권의 확산이라는 큰 사상적인 조류가 세계 경제의 역사로 전도되어가는 비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인간 동산(動産)과 물류로 간주되었던 아프리카인들을 강제로 포획하여 저 멀리 새로운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하게 됨으로서 근대성과 근대화는 그 역사적 노정에서 결코 씻을 수 없는 흔적과 오점의 역사로 환원하게 되어 버렸다. 여기에 야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반성의 차원을 문화혁명의 기회로 재고하는 다른 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것은 근대를 "바로보기" 위해 결국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최근의 연구성과를 통하여 재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대항해시대 이후 노예무역과 제도의 발전과 그 과정 그리고 그러한 충격이 서반구 신생국가 미국의 역사와 그 발전에 연관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지평을 보다 확대해 보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아니 역사가들의 시선에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변경지역을 초점을 맞추어서 확인하려고 한다. 특히 신생국가 미국의 가장 오지로 개발되고 있었던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노예제도와 무역이 왜 확산되고 실제 그 영향으로 이 지역이 다시 대서양 경제조건으로 편입되어 어떻게 세계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글로벌히스토리 또는 빅히스토리 방식의 조망을 목표로 한다.

사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역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했다. 특히나 대서양 무역에서 노예무역이 차지하는 그 범위와 수치는 거의 계량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체계적인 조사가 완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생국가 내에서도 일어난 이른바 국내무역 차원에서 그 발전과 성장 그리고 미국의 국민주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충격에 대해서도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연구에서 빠져있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여전히 발굴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이런 연구를 통하여 거대한 경제적인 물산장려운동이 만들어낸 인간 비극과 그 잔인성이 얼마나 먼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구사적 조망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보고자 한다. 노예무역과 경제가 침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지역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 국가 내에서 거의 2백만의 노예자본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제의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변방지역으로 중서부지역 또는 오하이오 강과 그 북쪽지역이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미국이 신생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존재할 수 없던 지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도 발전하는 노예무역과 거래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예제도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미시시피강 수계가 세계 경제로 포섭되고 이 강을 중심으로 뉴올리언스가 노예제도와 무역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계에서 저 멀리 있었던 북서부조례지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초 기획된 개발지역이었고 자유노동만을 기축으로 설계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노예와 연관된 경제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기왕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예제도와 무역이 가진 그 강력한 경제적인 힘의 자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예무역과 제도의 확장의 빅-히스토리와 글로벌 세계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거시적 통계와 지표 속에서 빠졌거나 생략되어 버린 노예무역과 거래의 규모,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각종 지표에서 수정을 요하는 것은 바로 도로, 강, 노예상품전시장에 대한 세밀한 지표의 수정을 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추상화된 일반화 그리고 환원적 정의에서 놓친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역사를 그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오지의 지역이 대서양노예경제, 면화생산경제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결국 저 멀리 대서양 양안의 경제적 조직이 어떻게 형성 발전하여 하나의 세계 경제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큰 역사의 조망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충격과 위력 또한 새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서양노예무역에서 미국 국내노예무역으로

미국의 새로운 변경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시시피강과 오하이오강 영역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시각적 규명과 관찰을 요구한다. 글로벌– 빅히스토리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노예거래의 역사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대서양 무역을 통한 역사에서 관계를 찾아보는 시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상품으로 강제로 신세계로 이전되는 약 4백년의 역사까지 포함해야 하는 역사이다.

시작은 이렇다. 대항해시대와 함께 15세기 말에 오면, 포르투갈 상인들과 군인들은 무려 4천마일의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서 그들의 교두보를 세웠다. 그런 전초기지를 통하여 노예와 설탕을 교환하거나 해안 가까이에 있는 여러 섬 들에서 재배한 포도주와 교환했다. 이어서 다른 제국들도 포르투갈의 뒤를 따랐다. 16세기에는 스페인이, 17세기에는 네덜란드·덴마크· 프랑스·영국이 이러한 무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1659년이 되자, 바베이도스, 그리고 브라질에서 설탕이 재배되면서 엄청난 부가

농장주와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해운업 종사자들에게 들어오게 되자, 아프리카와 연결된 무역은 유럽의 식민지 경영에서 볼 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업이 되었다. 서구 제국들은 다른 경쟁 세력을 물리치고 독점적인 무역 허가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동시에 식민지에서 관세 수입에 사활을 걸었다.[1)]

이런 추세는 바로 당시의 경제이론인 중상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유력하고 연줄을 가진 투자가들이 하나의 조직 또는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상 널리 알려진 로열아프리칸컴퍼니, 네덜란드서인도회사와 같은 조직이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조직들은 정부로부터 특허장을 받아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 자신의 수익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눈독을 들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권에는 단지 무역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비기독교국가의 왕과 전쟁을 선포할 권한에서부터 긴 해안선을 따라서 획득된 식민지 내에서 그 지역의 토착 왕조의 신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

1) James A. Rawley,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A History* (New Yor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1), pp,2-23, 55-57, 70-84, 132-141, 247-260, 284-294; David W. Galenson, *Traders, Planters, and Slaves: Market Behavior in Early English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atrick Manning, *Slavery and African Life: Occidental, Oriental, and African Slave Tra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99; John Thornton, *Africa and Africans in the Making of the Atlantic World, 1400-16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Gwendolyn Midlo Hall, *Creole Africans in Colonial Louisiana: The Development of Afro-Creole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Baton Rouge: LSU Press, 1992); Robin Blackburn, *The Making of New World Slavery: From the Baroque to the Modern, 1492-1800* (London: Verso, 1997); Walter Johnson,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4-7.

지 인간사냥 내지는 구매행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2)]

여기에 그들이 이러한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활동은 유럽 각 국가들의 법률로 보호되었고 아프리카 해안선을 끼고 빼곡하게 자리 잡았던 노예 공장이라 불리는 노예 집합소는 그들 각각의 국가들로부터 전쟁과 무력으로 철저히 보장받았다.[3)]

이 기간에는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 유럽 국가들은 전쟁으로 혼란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 자유의 요구와 확대 문제로 격동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무역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면 완전히 다른 4백년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해외에서 개척한 식민지 물산에 대해서 모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었다. 예를 들면 담배, 인디고, 쌀, 면화, 커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탕이 해당된다. 이들 원자재는 식민지 간의 직거래로, 또는 식민지와 유럽 간의 직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대서양의 물류 방식은 소위 "삼각무역"이라고 불려 졌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서인도 제도 혹은 브라질에서는 설탕을, 유럽으로부터는 돈과 제조업 물산을 가져와서 교환하는 물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물산의 이동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왜?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이득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4)]

약 4백년간 지속된 삼각무역을 통해서 적어도 1천만에서 1천 1백만 명의 인간 상품이 강제 이동을 하게 된다. 특히 1700년대에서 1850년대까지는 이러한 이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였다. 이 기간에는 매년 5-6만 명이 대서양을 건넜다. 이들이 노예선의 비좁고 어두운 아래층에서 포개져서 바다를 건너 신대륙으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820

2) Ibid.
3) Ibid.
4) Ibid.

년대에 오면, 대서양을 건너는 유럽인들의 거의 5배가 넘는 숫자가 이 험난한 항로를 건너게 된다.[5)]

그리고 이들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더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를 무사히 건넌 사람들이었다. 항해 중에 죽음을 겪어 포함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어이할까? 이 인간화물 중에서 5퍼센트 정도가 약 3주간의 항해 기간에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는 데 무려 3개월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1/4에 해당하는 인간화물들이 죽음을 맞았다.[6)]

이러한 숫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위 중간 항로(Middle Passage: 아프리카 서해안과 서인도 제도사이의 항해)에서 겪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슬에 묶인 노예들은 선박 밑에 있는 화물 적재함에 물건을 쌓듯이 차곡차곡 포개졌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 노예들은 남녀로 구분되어 채워져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견뎌내야 했다. 더욱이 숨을 쉴 수 없는 열기가 파고들었고, 다양한 질병으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자살을 택하는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반란을 도모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은 상품들은 모두 바다에 던지어졌고 물고기 밥이 되었다.[7)]

---

5) Phillip D. Curtin, *The Atlantic Slave Trade: A Censu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Manning, *Slavery and African Life*, p.37; Rawley,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p.428; Johnson, *Soul by Soul*, pp.4-7.

6) Rawley,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pp.303-306; Johnson, *Soul by Soul*, pp.4-7.

7) Rawley,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pp.283-306; Joseph Miller, *The Way of Death: Merchant Capitalism and the Angolan Slave Trade, 1710-181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pp.314-442; Stephanie Smallwood, "Salt-Water Slaves: African Enslavement, Migration, and Settlement in the Atlantic World of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99; Johnson, *Soul by Soul*, pp.4-7.

미국연방헌법은 1798년에 비준을 받았다. 미국의 최상위법에 해당하는 이 법안에는 1808년 이후에는 아프리카 노예 수입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간 상품 무역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노예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노예를 써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버지니아인을 포함한 일부 노예소유주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예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이 노예제 아래에서 유지되는 사회적인 지위가 위험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 말인즉, 북미에서 노예 인구는 자체적으로 재생산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한 추세는 헌법이 비준을 받은 시기까지 거의 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노예 수입이 없어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된다. 자체적인 노예 생산을 통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서양의 노예무역이 종식된다는 것이 북미대륙에서 노예제도가 종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8)]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신대륙에서 노예 인구의 사망률이 높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마침내 노예 수입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희소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부지역으로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미국 자체에서 생산된 노예들이 그곳에서 필요한 노

8) Steven H. Deyle,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I995, pp.20-44; W E. B. DuBois, The Suppression of the African Slave Trad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683-1870 (New York: Longmans, 1904); Ira Berlin, "Time, Space, and the Evolution of African Society in British Mainland North America," *American Historical Review* 85 (1980), pp.44-78; Michael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Masters, Traders, and Slave in the Old Sout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pp.1, 2, 133-178; Johnson, *Soul by Soul*, pp.4-7.

동력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헌법이 비준된 이후 남북전쟁까지 약 100만 이상의 노예 인구가 상남부에서 하남부로 이동하게 하면서, 노예소유자들의 경제적 관점에서 노예들은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되었다. 이들 중 무려 2/3이상이 물건을 사고파는 상품거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노예들은 새로운 영토로 이송되게 되었다. 미국 자체에서 이들 노예를 재생산하는 사업은 곧 어떤 사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환금작물(換金作物)이라고 할 수 있었다.[9)]

물론 이러한 사업이 처음부터 현저하게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오면, 쇠사슬에 묶인 노예무리들을 거의 100년 동안 담배재배로 토지의 비옥도가 사라져 점차 쇠퇴해가는 체사피크만지역에서 혁명 후 점차 노예제가 확대 발전하고 있는 캐롤라이나지역의 도로에서 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곳보다 더 남쪽에서도 확대하고 있었고 또한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서부지역에서도 국내노예무역과 함께 이들 인간 상품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노예거래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으로서 이름이 있거나 사업 중심지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10)]

대체로 남부의 작은 읍내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련의 '투기성 인간상품거래'가 지금까지 점차 약화 되어가고 있는 노예제

9) Ibid.

10)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pp.12-21; Deyle,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pp.17-70; Timothy H. Breen, *Tobacco Culture: The Mentality of the Great Tidewater Planters on the Eve of R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Allan Kulikoff, *Tobacco and Slaves: The Development of Southern Cultures in the Chesapeake*, 1680-180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Allan Kulikoff, *The Agrarian Origins of American Capitalism*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I992), pp.226-263; Johnson, *Soul by Soul*, pp.4-7.

경제시스템에 다시 한번 큰 자극을 주었다. 노예 무리들이 계속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먼지투성인 시골 도로 또는 도로변 술집에서 상품으로 거래가 되었다. 비록 이들을 사고파는 것이 공개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항시 장사치들이 존재하였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 19세기에 오면 이런 행위들을 더더욱 쉽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9세기에 오면 대규모 사업으로 치닫게 된다.[11)]

이리하여 18세기 말에 오면, 노예장사는 당시 국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거래 품목인 면화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노예들은 담배, 쌀, 인디고를 여전히 재배하고 있었고, 사실 이들 제품이 미국 노예제도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결정적으로 바꿔어 놓는 인간 발명품이 출현하게 된다. 1793년 조면기의 발명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 다음 남부지역의 인디언을 서부로 강제이주정책 이것은 훗날 "눈물의 행로"라고 불리어지는 장면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1838년 비극의 정점으로 남게 된다.[12)]

결국 이들 원주민이 떠나고 난 후 광대한 남부지역은 경작지로, 구체적으로는 면화 경작지로 바뀌고 노예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노예 소유주들은 그 지역의 이런 변화를 이른바 면화 "왕국"으로 부르게 된다. 이어서 그들은 새롭게 출현하는 남서부지역—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보자. 1820년대 이주 노예는 155,000명, 1830년대는 288,000명, 1840년대는 189,000명, 1850년대는 무려 288,000명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총 1백만 명에 해당하는 노예들 중에서 약 2/3가 노예 장사치들에 의해서 거래되었다. 그들이

11) Ibid.
12)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p.12; Johnson, *Soul by Soul*, pp.4-7.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확대하게 되는 이 사업은 쇠퇴일로에 있던 상남부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남부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상생을 가능토록 한 것이 노예상인들의 역할이었다.[13)]

남북전쟁 이전까지 노예무역은 면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경제의 방향과 함께하고 있었다. 특히 1830년대 세계 면화경제는 최고 활황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어서 1840년대에 잠시 쇠퇴하다가 다시 1850년대에 10년간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사실 노예가격은 면화 가격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 면화 가격을 뒤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840년대 이후에 오면, 노예가격은 면화 가격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가령 면화 1파운드 가격이 7센트에 비하는 반면, 노예 1명의 가격은 무려 7백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후에 노예가격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제 면화가격과 노예가격은 상관관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도로 노예상품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예를 소유한 계급으로의 진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노예소유 유무가 이 사회의 신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노예는 재산목록 1호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미 계급에 기초한 사회로 완전히 분화되었던 사회 안에서 긴장은 더더욱 확대되게 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남부를 중심으로 그러한 공포의 전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14)]

---

13) Ibid.

14) Frederic Bancroft, *Slave Trading in the Old South* (Baltimore: J. H. Furst and Company, 1931), pp.339-364; Roger W. Shugg, *Origins of Class Struggle in Louisiana: A Social History of White Farmers and Laborer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39), pp.86-88, 152-157; Laurence Shore, *Southern Capitalists: The Ideological Leadership of an Elite, 1832-188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Deyle,

182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이 기간을 보면 미국 특히 남부지역에서 노예거래사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지 도시나 시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에서 전방위적인 경제지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역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남북전쟁 이전 남부에서 노예거래를 주로 하던 지역은 노예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수입의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재산 가치가 약 5억 달러에 이르는 이 거대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상인들과, 한편으로 그 영향권에 들어온 지역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를 얻게 된다.[15)]

여기에 노예거래사업은 상당히 투기성 짙은 사업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때 은행은 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도 노예거래사업과 투기가 경제적 활황으로 나타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에는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조직, 기구,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우선 중개업자들과 거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 동부해안지역과 새롭게 경제적으로 팽창 발전하고 있는 서남지역간의 거래에서는 환어음의 유통이 활발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pp.80-98; Robert W. Fogel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Boston: Little Brown & Co., 1974); Robert W. Fogel, *Without Consent or Contract: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Slavery* (New York: W. W. Norton & Co., 1989); Johnson, *Soul by Soul*, pp.4-7..

15)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p.130; Lawrence J. Kotlikoff, "The Structure of Slave Prices in New Orleans, 1804-1862," *Economic Inquiry* 17 (1979), p.498; H. Freudenberger and J. B. Pritchett, "The Domestic United States Slave Trade: New Evidenc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1 (1991), pp.471-475; Deyle,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pp.117-119; Johnson, *Soul by Soul*, pp.4-7.

하게 전개된다.[16)]

노예의 몸은 상품이다. 최상의 상태로 상품이 유지되어야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종 구매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1달에서 3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에 그들을 이동하고, 재우고, 옷을 입히고, 먹이는 것, 돌보는 일에서도 여러 가지 일거리와 수요·공급상의 이익 장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긴 이동 중에 상품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 방지책으로 일종의 물건 운송보험을 들었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까지도 들었다.[17)]

그들의 판매행위는 서류로 공증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했다. 여기에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도 내야만 했다. 무려 수십만의 사람들이 도시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그들 자신을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속한 행정당국에 말이다. 이러한 거래에서 농장주와 노예 식량 배급업자, 의사, 보험회사직원들은 이러한 거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에서 소득을 얻었다. 이와같이 노예제를 둘러싸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범위를 수치로 환산한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노예 한 명 가격의 13%에 해당된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적어도 남북전쟁 이전까지 수천만 달러에 해당한다는 조사가 있다.[18)]

적어도 무려 60만 명 이상의 인간 상품들이 주와 주 경계를 넘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러한 수치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주 경계 안에서 공증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나 채권매각의 경우, 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부분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노예거래에 대한 통계는 주로 노예거래의 외형적 규모

16) Ibid.
17) Ibid.
18) Ibid.

에 대한 연구 성과였던 반면, 세세한 세부 항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

주 사법부 민사법원에서는 노예소유주가 여러 이유로 자금상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노예들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들을 정리해서 현금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이러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의 누락된 불편한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어떤 역사가가 다른 곳이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 자체가 온전히 "가장 큰 노예 경매 회사"라고 주장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전쟁기간 중에서 주와 주 그리고 주내에서 작은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의 수, 여기에 주정부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종합해보면 무려 2백만 명의 인간 상품들이 남부를 중심으로 거래되었다.[20]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약 40년 동안 지금까지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아니 점조직 차원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던 거래패턴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 여전히 거래 패턴은 대부분이 현지, 즉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인간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편력상인들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거래 네트워크가 점차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즉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완전히 새롭게 진화하는 이러한 패턴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도시마다 대규모 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몇 가지 주도적이며 이전과 달리 오래 지속성을 갖는 안정적인 회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21]

---

19) Deyle,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pp.12-141; Thomas D. Russell, "South Carolina's Largest Slave Auctioneering Firm," *Chicago-Kent Law Review*, 68 (1993), pp.1241-1282; Johnson, *Soul by Soul*, pp.4-7.

20) Ibid.

다시 설명하면, 과거에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투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순회편력상인에 의한 거래라는 단순한 방식에서 한층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예들은 당시 미국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볼티모어·워싱턴·리치몬드·노포크·내슈빌·세인트루이스에서 쇠사슬에 묶여 내지 교통로를 통해, 또는 연안 해상이나 미시시피강 증기선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이동된 노예들은 찰스턴·사바나·모빌·내치즈,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올리언스에서 팔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들 노예들은 빠른 시간에 공개된 대규모 경매장에서 거래되기보다는 오랜 기간보다 은밀한 거래방식에 이루어졌다.[22)]

Ⅲ. 중서부지역과 노예제도와 노예무역

미국이 노예거래 무역을 통해서 하나로 거대한 물류혁명과 통합되어 가는 그 상황은 바로 당시 미국의 가장 외곽 지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지역은 역사가들에 의해 결코 노예제도와는 상관없는 지역으로 여겨졌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해 바로 이 자유토지의 경계선이자 결코 노예제도와 관계없어 보이는 지역도, 다름 아닌 노예무역과 제도의 흔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21) Bancroft, *Slave Trading in the Old South*;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Deyle,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Johnson, *Soul by Soul*, pp.4-7.

22) Ibid.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변경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켄터키와 그리고 오하이오강 넘어 인디애나, 일리노이를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초기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노예제도가 확대일로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변경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켄터키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도 노예제도가 침투하고 있었다. 당시 켄터키의 인구에서 약 1/5이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밖에 지역에서는 물론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노예제도가 성장중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자영농을 중심으로 노예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 지역 가운데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목을 끄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 켄터키는 노예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크기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노예제도의 모습을 갖춘 대규모 농장제도의 차원은 아직 아닌 것이다.[23)]

우선 이 켄터키주에서는 노예제도가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았다. "결코 지배적인 방식은 아니었고 단지 묵인할 수 있을 정도의 노예제도"가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주의 지리적 위치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우선 이 주의 남쪽 경계선은 남부지역이라

23) Marion B. Lucas, *A History of Blacks in Kentucky*, vol. 1, *From Slavery to Segregation, 1760-1891* (Frankfort,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2), pp.xv-xx, 2-3; Elizabeth Fox-Genovese and Eugene D. Genovese, *Slavery in White and Black: Class and Race in the Southern Slaveholders' New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7; Michael Burlingame, *The Inner World of Abraham Lincoln*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p.21; Richard L. Miller, *Lincoln and His World: The Early Years, Birth to Illinois Legislature* (Mechanicsburg, Pa.: Tradeselect, 2006), pp.17-29. William W. Freehling, *The Road to Disunion: Secessionists Triumphant, 1854-186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2-3.

고 알려진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남부 노예 지역의 북쪽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지리적 이유로 인해, 남북전쟁 초기에 이 지역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양측의 대결이 이 지역의 내부갈등으로 첨예하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24]

1811년에 오면 켄터키에는 약 7,500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약 1,000명의 노예들이 속해 있었다. 노예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농의 농지 또는 오하이오강을 일터로 삼는 백인들의 일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었다. 당시 켄터키는 이른바 국내 노예무역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로 녹크릭이라는 곳은 루이스빌이나 내시빌과 연결하는 주요 간선로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 루트를 이용하여 서부로 이동하는 새로운 정착민들, 편력상인들, 그리고 족쇄를 찬 노예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길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25]

켄터키주의 탄생은 사실 버지니아의 서부 변경 영토로 시작된 것이기에 일찍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는 백인들은 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주와 마찬가지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1792년 이 주의 최초로 만든 제헌헌법을 보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의 허락을 받기 이전 또는 적절한 금전상의 보상을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흑인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한다.[26]

---

24) Ibid.

25) Ibid.

26) Lowell H. Harrison, *The Antislavery Movement in Kentucky*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78), pp.20-25; James F. Hopkins, ed., *Papers of Henry Clay* (10 vols.; Lexington, Ky.: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59-91), 1: pp.5-7; J. Blaine Hudson, "In Pursuit of Freedom: Slave Law and Emancipation in Louisville and Jefferson County, Kentucky," *Fil-*

1799년에 주헌법협의회는 기왕의 주 헌법이 특히 노예에 대해서 너무나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주헌법을 준비하였다. 이 지역 출신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헨리 클레이는 주헌법협의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클레이의 제안은 새로운 주헌법에 집어넣는데 실패하고 만다. 그와 함께 하는 반노예주의자들의 대표들은 강력한 노예제도 철폐의 절차를 집어 넣는데는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중요한 조항을 새로운 주헌법에 삽입할 수 있었다. 바로 노예를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주 경계내로 들여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다는 구절을 삽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로서 클레이의 공헌은 분명 놀라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공헌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물거품이 된다.[27)]

오하이오강을 넘어서 인디애나는 정착인에게 가장 중요한 토지 획득과 소유 문제에서 남다른 공정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있었다.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켄터키에서 오하이오강을 넘어서 정착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여기에 노예제도보다는 자유노동의 구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오고 있었다. 인디애나가 미국의 변경 이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토지 측량과 분배에서 켄터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80년대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법령을 발표하여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었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이주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

---

son History Quarterly, 76 (Summer 2002), pp.290-92; Kenneth J. Winkle, "'Paradox Though it may Seem': Lincoln on Antislavery, Race, and Union, 1837-1860," in Brian Dirck, ed., *Lincoln Emancipated: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s of Race* (DeKalb, Ill.: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7), p.10.

27) Ibid.

주었던 이유였다. 이 시기에 연방토지규정을 충분히 이용하여 우선 정착인에게 배분하기 앞서, 인디애나의 전토지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런 다음 토지관리국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공정하게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런고로 믿을 수 있는 토지 획득과 등기를 얻을 수 있었다.[28)]

1812년 전쟁이 발생하고 나자, 이른바 북서부조례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인디언의 힘과 세력이 노골적으로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토지는 하나같이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소유하게 되고 이제 공공토지로서 일반 정착인들에게 매매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이 지역은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부상하게 된다. 수천 명에 이르는 정착인들이 이주를 준비하고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게 된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이주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신천지의 농토를 얻기 위해서 오하이오강을 건너게 된 사람들이다. 당시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이제 "총 한 번 쏘지 않고 켄터키는 인디애나를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정착인의 성격과 역사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29)]

여기에 인디애나에서부터 일리노이까지 이 지역은 1787년 북서부조례에 의하여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남북전쟁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용감한 노예들이 그들의 자유를 찾기 위한 희망의 땅은 바로 이곳이 되었다. 그들은 오하이오강을 먼저 필사적으로 건너게 된다. 그러함에도 오하이오강이 미국의 지리적인 구별로 그리고

28) Andrew R. L. Cayton, *Frontier Indiana*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p.261-267.

29) Kenneth J. Winkle, *The Young Eagle: The Rise of Abraham Lincoln* (Dallas: Taylor Trade Publishing, 2001), p.11; Cayton, *Frontier Indiana*, pp.261-267.

여기에 문화적인 경계의 공간 즉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그런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강을 중심으로 노예제도와 자유를 구별하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거의 수십 년 동안 켄터키에서부터 인디애나 남부지역은 어려움 없이 유통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소유주들이 어떤 장애도 없이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포획꾼을 보내고 있었고 이들은 이 강을 건너는 데 어떤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1812년 전쟁 이전까지 북서조례지역은 일종의 경계지역의 이중성을 띄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른바 "미들그라운드" 의미의 역사학적 특성과 스펙트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이 교류하고 물론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런 장소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영국계 이주민들에서부터 프랑스, 미국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런 혼돈의 문화로 상징화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고로 지리적인 정체성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유동성이 넘치는 곳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역사가들의 관심이 높아만 가고 있는 지역이다.[30]

---

30) Jeremy Adelman and Stephen Aron,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June 1999), pp.814-823; Nicole Etcheson, *The Emerging Midwest: Upland Southerners and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Old Northwest, 1787-1861*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p.4-5; William N. Parker, "From Northwest to Midwest: Social Bases of a Regional History," in David C. Klingaman and Richard K. Vedder, eds., *Essays in Nine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The Old Northwest*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75), p.23; J. L. Balen to Justin S. Morrill, March 11, 1859, Justin S. Morrill Papers, Library of Congress (LC).

결국 이 지역은 좋게 말하면 문화적 교류이자 번영지 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유혈 충동이 언제나 상주하였다. 이 지역에서 큰 변동은 바로 영국과 그들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테쿰지라는 원주민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대전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성공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된다. 당시 인디언의 리드로 이 지역의 모든 인디언을 연합하여 미국의 지배하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원주민의 노력이 실패로 들어가게 되자, 이제 이 지역은 그 전쟁 이전 시기보다 잠시 더 유동적인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다음에 누가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31)]

이제 신생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경 문화가 이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의 남부지역의 여러 카운티는 우선 상당히 큰 규모의 지역이었고 새로운 경계지역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전의 경계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이면에서 뿌리 깊은 갈등의 모태인 노예제도 경계 지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영토가 확장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자유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영농 문화, 더 구체적으로 노예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경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지역의 끝을 경계로 하여, 그 남쪽에서 노예제도가 주로 일어나고 번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부의 노예제도 문화권에서 보면 분명 이 지역은 가장 북쪽 지역의 경계선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예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의 문명과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투쟁과 갈등이 이 문제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32)]

31) Ibid.
32) Ibid.

이 문화적인 애매성과 불명료성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우선 이 지역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남부 문화를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남부의 이상을 더 가진 집단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부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남부인들도 진정 잘 모를 그런 것을 이제 이 경계에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남부보다도 더 남부의 이상을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가치를 준수하고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던 곳이다.[33)]

특히나 이 경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에서 남부의 흔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정착하는 과정과 방식에서까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가구에서부터 가족관계, 경제구조까지 전형적으로 켄터키와 테네시와 깊은 문화적인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놀라운 것은 동일 주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완연히 다른 두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북부지역에서는 미국의 남부보다는 동부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주가 오게 되자 같은 주에서도 북과 남의 차이가 분명해지게 될 것이다.[34)]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 거의 10년간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의 인구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북부 일리노이에서는 가장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이 지역을 처음으로 정착하고 발전을 주도한 것은 여전히 남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여전히 일리노이의 경우에는 그 주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카운티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과 여론을 결정하는 것도 남부의 영향력이

33) Ibid.
34) Ibid.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35]

이러한 남부의 견인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일리노이가 주로 성립되고 7명의 주지사 중에서 6명이 남부 노예주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1848년 일리노이의 주의회와 주헌법협의회에서 참석한 중요 인사의 대다수가 켄터키주에서 왔다는 점은 아직까지 남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36]

이들이 켄터키에서 왜 북서부조례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오하이오강을 건너서 이주를 오게 된 이 지역에서도 18세기 이래로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북서부조례에서는 그 규정상 노예제도를 존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현장에서는 경우가 달랐다.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사라질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인디애나지역은 독립된 주로서 승격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준주라고 부르는 형태로 연방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었다. 그 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버지니아 출신으로 농장주이기도 하였다. 그가 이 지역에서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기왕의 조례라는 장애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노력에서 남달랐다. 그러나 연방의회를 통해서 시도하였던 그 작업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비록 이 지역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이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이었다. 어쨌든 해리슨에서 보았듯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노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고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예제도의 논의와 상관없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7]

---

35) James E. Davis, *Frontier Illinois*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p.157; National Era, August 19, 1847.

36) Ibid.

37) Cayton, *Frontier Indiana*, pp.189-190; John C. Hammond, *Slavery, Free-*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반노예주의자들의 정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자,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 정당인 대중당(Popular party)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오래전에 먼저 진출한 "버지니아 귀족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소농과 자영농의 이해를 위한 투쟁이 계속된다. 이들 자유노동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준주지역의 입법부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리슨이 추구하는 지역의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노예제도의 수용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인디애나가 1816년 헌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주에서는 결국 노예제도를 금지하게 된다.[38)]

그러나 이 지역의 속사정을 보면 좀 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서조례에 의해서는 분명 노예제도는 이론적으로 금지된 영역이지만 일리노이 경우에는 이 지역이 준주로 있을 때인 1809년에서 1816년까지 주지사였던 니니안 에드워즈는 22명의 노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는 광고지에서 "순종의 말 한 필"과 "매우 거대한 영국산 황소 한 마리"라는 가축과 함께 인간 상품으로서 노예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다.[39)]

1818년 일리노이 헌법에서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분명한 구절을 명문화한다. 그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이미 이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의 노예들은 이러한 조항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1840년 말 인구조사에

---

dom, and Expansion in the Early American West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7), pp.97-103, 116-121.

38) Ibid.

39) Paul Finkelman, "Evading the Ordinance: The Persistence of Bondage in Indiana and Illinois,"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9 (Spring 1989), pp.35-48; Arvah E. Strickland, "The Illinois Background of Lincoln's Attitude toward Slavery and the Negro," *Journal of the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JISHS), 56 (Autumn 1963), p.476.

의하면 일리노이에서는 331명의 노예의 존재가 파악된다. 여기에 일리노이는 노예 소유주들이 다른 주로부터 유입되는 흑인 노동자들을 이른바 미국의 건국 이전에 자주 나타나는 자발적인 계약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에 한해서 그 운영을 허락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예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이들을 강제하고 있었다. 노예제도가 이 지역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충분한 증거는 바로 이 지역의 발행되는 신문들에서는 아주 분명히 노예라는 말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노예의 일종인 "서번츠"(servants)라는 말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음을 당시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40]

간단하게 말해 이른바 당시의 표현으로서 "서번츠"라는 이름으로 1830년대와 1840년대 15살 이하의 흑인들이 주에 유입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합법화하였다. 물론 이들은 자유롭게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그 주 안에서 여기저기에 팔려가는 신분이 되었다. 1840년 당시 이 주의 상황을 극단적 노예제 폐지운동을 주도한 〈해방자〉(*The Liberator*)라고 불리는 주간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의도와 목적 모든 면에서" 바로 이곳 "일리노이는" 분명 "노예 소유주"이다.[41]

한편 당시 미국은 오하이오강을 주변으로 하는 이 지역과 미시시피 강은 발 빠르게 하나의 수로교통망으로 연결되어가고 있었다. 당시의 이 지

40) Paul M. Angle, ed., *Prairie State: Impressions of Illinois, 1673-1967, by Travelers and Other Observ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81; N. Dwight Harris, *The History of Negro Servitude in Illinois* (Chicago: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1904), pp.48-52, 226-227.

41) Merton L. Dillon, "The Antislavery Movement in Illinois, 1809-1844" (unpub.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51), p.124; Harris, *History of Negro Servitude*, pp.229, 235; Elmer Gertz, "The Black Codes of Illinois," *Journal of the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JISHS), 56 (Autumn 1963), pp.454-473.

역의 수계 교통을 통한 여러 종류의 물류 이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 시대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교통혁명과 시장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상인 아니 일반 농업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이 수로를 통하여 상업과 유통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북쪽에서 오하이오강을 이용하고 다시 미시시피 수계를 따라서 저 멀리 아득한 남쪽 강 하구에 있는 뉴올리언스로 이어지는 코스였다. 그러나 남쪽 도시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이어지는 상인들의 활동도 무시못할 정도였고, 그런 경과로 남과 북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가 부족한 물자를 소모하고 보충할 수 있었다. 이른바 전통적으로 북서부 조례지역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에서 자신이 생산한 잉여 생산품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남부의 대농장체제 아래 늘어나고만 있는 노예들에게 필요한 물류와 자원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일단 물산이 이곳 뉴올리언스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다시 바다로 나아가고 이어서 미국 대서양 연안의 여러 지역 특히 북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대서양을 건너 유럽 특히 영국을 무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북서부조례지역의 새로운 정착지에서는 바로 수계를 이용하여 북동부로, 또는 유럽으로 이송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시시피강의 수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더욱 안전하고 빠른 루터였다.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철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와야 했다.[42]

여기에 이 강에서 면화를 운반하는 거대한 선박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42) Burlingame, *Abraham Lincoln: A Life*, 1: pp.43-44, 56-57; Charles Sellers, The Market Revolution: Jacksonian America, 1815-184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Melvin Stokes and Stephen Conway, eds., *The Market Revolution in America: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Expressions, 1800-1880*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96).

그런 경우에는 노예들이나 흑인들이 감당할 노역이 분명 있었다. 짐을 옮기거나 선박에 쌓는 작업에서 다시 하역하거나 더 큰 이동 수단으로 옮기는 작업에서도 이들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농장에서 물산을 생산하는 것도 이들의 노동력에 의해 좌우되었다. 여기에 당시 이 수계를 통한 물류의 중에는 설탕 농장에서 생산한 것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노예들의 노동 없이는 생산과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들 물산이 거점 물산 적재장이 있는 선착장을 중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물류 이동의 장관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마디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미시시피강과 오하이오강이라는 하나의 교통로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하이오강을 노예제도와 무역의 경계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서사이다.[43]

두 개의 수로를 통한 육상물류의 번영을 반영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1820년대에서 1830년대 초에 오면 이 도시는 상상을 초월하여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당시에 이미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었고 여기에는 인간 상품으로 간주 되었던 17,000명의 노예, 12,000명의 자유 신분의 흑인들도 존재하였다. 바로 뉴올리언스 이야기이다.[44]

다양한 이 도시의 거주인들은 북서부조례지역의 경우가 미들그라운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듯 이 지역이 바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제국 그리고 해양 지역의 또한 문화가 섞여진 경계지역으로 모든 사람·모든

43) Ibid.

44) Albert A. Fossier, *New Orleans: The Glamour Period, 1800-1840* (New Orleans: Firebird Press, 1957); Joseph G. Tregle Jr., "Early New Orleans Society: A Reappraisal," *Journal of Southern History*(JHS), 18 (February 1952), pp.20-36; J. P. Mayer, ed., *Journey to America*, trans. George Lawrence (New Haven: Greenwood, Westport, 1959), pp.164-165; Richard C. Wade, *Slavery in the Cities: The South, 1820-186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150.

물산들이 국제적 허락하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역과 문명의 교차점 같은 곳이기도 하였다. 우선 이곳의 인종의 특색으로 크게 백인과 흑인을 중심으로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흑인 중에서도 자유 신분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사례이다.[45)]

사실 이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장면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그 도시에 어떻게 다양성을 지난 문화가 혼재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정학·지경학적 위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뉴올리언스는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이다. 미시시피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미국의 뉴욕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상업 유통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대륙과 강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재화가 몰려드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도시가 이 지역 계곡의 주요 농업 생산물의 집적 장소이자 다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통계가 당시의 이 도시의 놀라운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28년 한 해에 여기 바로 이 항구로 전 대서양을 운항하는 중요 선박들이 출입한 수이다. 증기선이 750척에 이르고 평저선의 경우는 무려 1,000척이 넘는다.[46)]

뉴올리언스는 또한 국내 노예무역의 가장 중요한 요지이자 그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노예는 사실 이 도시의 대표적 상업이었다. 이 도시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지역에서 이런 광경을 발견하지 못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노예무역·노예시장이 활발하였다. 여기에 이 지역에서 번성하는 여러

45) Ibid.
46) Wade, *Slavery in the Cities*, 5-6, pp.199-201; Johnson, *Soul by Soul.*

출판물과 신문들에서도 이런 상업의 흔적과 궤적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노예시장이 열린다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가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노예경매는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잘 알려진 곳은 바로 중앙 노예시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이다. 바로 이곳은 지금이나 그때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여행자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특히 성찰스호텔도 누구나 찾아가서 이 기묘한 인간 시장에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두 강 오하이오, 미시시피의 모든 물산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국제적인 항구의 노릇을 분명 이 도시가 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노예거래와 노예무역으로 움직이는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47)]

Ⅳ. 결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노예무역은 대서양 항로를 타고 서반구에 인간 동산을 이동하게 된다. 그들은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물산으로서 간주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국내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은 더더욱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노예의 재생산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상업을 꿈꾸게 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세계

47) Miller, *Lincoln and His World: Early Years*, pp.81-82; Wade, *Slavery in the Cities*, pp.5-6, 199-201.

경제가 면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 즉 미시시피강 계곡과 오하이오강 주위는 급격한 시장경제로 편입되게 된다. 특히 미시시피강 수계 남쪽을 중심으로는 대규모 면화재배경제로 자연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노예노동의 필요성이 절감되게 되자 국내노예무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오하이오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남쪽으로 이어지는 미시시피강과 연결하여 이 노예경제의 네트워크에 필요한 각종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다. 결국 이 지역은 이른바 시장혁명·교통혁명이 일어나고 두 강의 생산물은 당시 동부의 뉴욕을 버금가는 뉴올리언스를 통하여 퍼지고 교환된다.

지금까지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은 오하이오강을 중심으로 그 이남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즉 그 북단지역은 일찍이 북서부조례지역으로 연방정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자유노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아예 노예제도가 발 불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혁명과 교통혁명을 비롯하여 제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됨에 따라서 이 지역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역사가들의 관심과 연구에서는 바로 이 강 북위 지역에서도 충분히 노예무역과 제도와 상관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더욱이 오하이오강 이남 지역의 켄터키 지역은 이미 노예제도의 확연히 발전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곳 강을 넘어 새롭게 주로 발전하고 있는 인디애나와 일리노이로 이주하여 노예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이식하고 있었다. 노예제도와 유사한 "서븐츠"(servants) 제도가 있었다.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간 동산의 물류화 과정이 당시로서는 분명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두 강의 수계를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게 된다. 대규모 노예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시피강 수계에서 이제 오하이오강의 영역에서 생산된 여러 농업생산물을 필요하게 되면서, 노예들을 먹고 입히기 위해서 이제 오하이오

강 유역에서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을 생산하게 된다.

노예제도와 물류의 세계 경제팽창은 단지 이 지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시시피 계곡의 확대 과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투여되어야 했다. 농장주는 면화생산의 기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구매에서부터 노예를 구입하는 자금을 이 나라 동부지역인 뉴욕의 금융업에 의존하였다. 이 돈은 저 멀리 대서양 넘어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출발한 자금이었다. 다시 이와 같은 조성으로 생산된 물류는 다시 대서양을 넘어서 이 나라의 중요 산업도시로 보내진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뮬류와 자본 이동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움직이게 된다. 이른바 글로벌 빅-히스토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2023.07.17. 투고 / 2023.07.27. 심사완료 / 2023.08.14. 게재확정)

[Abstract]

Slavery between the Ohio River and the Mississippi River

Yang, Hong-Seuk

This article is to explain why, when and how the northern part beyond the Ohio River was incorporated into slavery and slave trade system. Until recently historians agree that the river is the borderline between free labor and slavery. But this interpretation is now never accepted after many historical proves and materials have been discovered.

Also this writing is interesting how the river could be connected into the Mississippi River economic network, which called by historians as both "Transportation Revolution" and "Market Revolution." Therefore, all the western frontiers within two rivers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in America finally had been interconnected into slavery economic system and slavery capitalism.

□ Keyword

Slave Trade, Market Revolution, Transportation Revolution, the Ohio River, the Mississippi River, Mid-West

[참고문헌]

양홍석, 「미시시피계곡의 면화 생산과 자연과 인간」, 『東國史學』 75, 2022.

Adelman, Jeremy, and Stephen Aron,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June 1999.

Angle, Paul M.,ed., *Prairie State: Impressions of Illinois, 1673-1967, by Travelers and Other Observ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Bancroft, Frederic, *Slave Trading in the Old South*, Baltimore: J. H. Furst and Company, 1931.

Berlin, Ira, “Time, Space, and the Evolution of African Society in British Mainland North America,” *American Historical Review* 85, 1980.

Blackburn,Robin. *The Making of New World Slavery: From the Baroque to the Modern, 1492-1800*, London: Verso, 1997.

Burlingame, Michael, *The Inner World of Abraham Lincoln*,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Cayton, Andrew R. L., *Frontier Indiana*,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Curtin, Phillip D. *The Atlantic Slave Trade: A Censu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Davis, Davis, James E., *Frontier Illinois*,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Deyle, Steven H.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5.

Dillon, Merton L., “The Antislavery Movement in Illinois, 1809-1844,”

unpub.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51.

DuBois, W E. B., *The Suppression of the African Slave Trad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683-1870*, New York: Longmans, 1904.

Etcheson, Nicole, *The Emerging Midwest: Upland Southerners and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Old Northwest, 1787-1861*,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Faragher, John Mack, *Sugar Creek: Life on the Illinois Prairi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Finkelman, Paul, "Evading the Ordinance: The Persistence of Bondage in Indiana and Illinois,"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9, Spring 1989.

Fossier, Albert A., *New Orleans: The Glamour Period, 1800-1840*, New Orleans: Firebird Press, 1957.

Fox-Genovese, Elizabeth, and Eugene D. Genovese, *Slavery in White and Black: Class and Race in the Southern Slaveholders' New World Ord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Freehling, William W., *The Road to Disunion: Secessionists Triumphant, 1854-186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Galenson, David W. *Traders, Planters, and Slaves: Market Behavior in Early English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Gertz, Elmer, "The Black Codes of Illinois," *Journal of the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56, Autumn 1963.

Hall, Gwendolyn Midlo, *Creole Africans in Colonial Louisiana: The Development of Afro-Creole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Baton Rouge: LSU Press, 1992.

Hammond, John C., *Slavery, Freedom, and Expansion in the Early American West*,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7.

Harrison, Lowell H., *The Antislavery Movement in Kentucky*,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78.

Harris, N. Dwight, *The History of Negro Servitude in Illinois*, Chicago, 1904.

Hopkins, James F. ed., *Papers of Henry Clay*, 10 vols.;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59–1991.

Hudson, J. Blaine, "In Pursuit of Freedom: Slave Law and Emancipation in Louisville and Jefferson County, Kentucky," *Filson History Quarterly* 76 Summer 2002.

Johnson, Walter,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Kulikoff, Allan, *Tobacco and Slaves: The Development of Southern Cultures in the Chesapeake*, 1680–180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Kulikoff, Allan, The Agrarian Origins of American Capitalism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2.

Lucas, Marion B., *A History of Blacks in Kentucky*, vol. 1, *From Slavery to Segregation, 1760–1891*, Frankfort,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2.

Manning, Patrick, *Slavery and African Life: Occidental, Oriental, and African Slave Tra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Mayer, J. P., ed., *Journey to America*, trans. George Lawrence, New Haven, 1959.

Michael,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Masters, Traders, and Slave*

in the Old Sout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Miller, Joseph, *The Way of Death: Merchant Capitalism and the Angolan Slave Trade, 1710-181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Parker, William N., "From Northwest to Midwest: Social Bases of a Regional History," in David C. Klingaman and Richard K. Vedder, eds., *Essays in Nine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The Old Northwest*, Athens, Ohio, 1975.

Rawley, James A.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A History*, New York: Captivating History, 1981.

Sellers, Charles, *The Market Revolution: Jacksonian America, 1815-184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Shore, Laurence, *Southern Capitalists: The Ideological Leadership of an Elite, 1832-188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Shugg, Roger W., *Origins of Class Struggle in Louisiana: A Social History of White Farmers and Laborer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39.

Strickland, Arvah E., "The Illinois Background of Lincoln's Attitude toward Slavery and the Negro," *Journal of the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56, Autumn 1963.

Thornton, John. Africa and *Africans in the Making of the Atlantic World, 1400-1680*, Cambridge, 1992. Smallwood, Stephanie, "Salt-Water Slaves: African Enslavement, Migration, and Settlement in the Atlantic World of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99.

Tregle Jr., Joseph G., "Early New Orleans Society: A Reappraisal," *Journal of Southern History* 18, February 1952.

Wade, Richard C., *Slavery in the Cities: The South, 1820-186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Winkle, Kenneth J., "'Paradox Though it may Seem': Lincoln on Anti-slavery, Race, and Union, 1837-1860," in Brian Dirck, ed., *Lincoln Emancipated: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s of Race* DeKalb, Ill., 2007.